

# 나주에 불교 중학교 탄생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  
장동학원 이사장 취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나주에 불교사학이 탄생했다.

나주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은 학교법인 장동학원을 인수하고 지난 3월 3일 세지중학교에서 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입학식을 겸해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백양사 주지 두백, 광주 동구사암련회장 지각, 나주불교사암련 회장 효공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지역기관장, 세지중학교 동문, 장동학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 이사장 원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동력으로 빠르게 자라야한다"며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해 세지중학교가 지역을 선도하는 사학명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또한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문화발전을

위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을 대표해 축사를 한 김봉인 세지면장은 "새 이사장과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학교뿐 아니라 세지면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힘쓰자"고 말했다.

취임식에 이어 간담회에서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은 "일제지하의 설움과 전쟁 속에서도 경제대국이 된 것은 교육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이다"며 "장동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불자들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동학원 세지중학교는 1956년 고등공민학교로 출범해 1969년 세지중학교를 개교했다. 현재 교직원 22명, 학생 127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동안 졸업생 6368명을 배출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광주지역 스님들과 세지중학교 재학생, 지역기관장을 포함한 200여명의 대중 앞에서 장동학원 이사장 취임사를 하고 있는 원일 스님.



폐교를 리모델링해 지역민들에게 의술을 펼치고 있는 지본한의원 노정은 원장.

## “산골에 주치의 두고 삽니다”

보성 봉갑사, 폐교 매입해 한의원 운영

산골 오지에 있는 사찰이 한의원을 개설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로 수몰지구로 자리한 보성 봉갑사(주지 각원)가 화제의 사찰. 관내에 있는 폐교를 매입해 '불교문화원'을 준비중인 봉갑사는 지난해 10월 지본한의원(원장 노정은)을 개원했다.

빈 교실 3칸을 초현대식 의료원으로 개조한 지본한의원은 지난겨울을 농한기를 맞은 지역민들에게 '약사어래 도량'으로 거듭났다. 이곳 주민들은 80% 이상이 노인들로, 의료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보성군이나 광주시로 나가야 한다.

지본한의원은 한의사 2명, 약사, 간호사 등 4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었고, 일반 의료시설과는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산골 오지라는 지역특성상 모든 방문객이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 닫는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또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진료비는 간호사 책상에 놓인 저금통에 알아서 넣도록 한다. 또한 약도 인근 산에서 채취한 자연산과 직접 재배한 약재를 최대한 활용해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진의 노력으로 개원 5개월이 지난 요즘도 지본한의원을 찾는 이가 매일 60~70여명에 이른다. '잘 낫는다'는 입소문으로 인근에 있는 문덕, 송광 등 4개면은 물론 광주, 화순 등 도심지에 사는 지역민들의 자녀들도 이곳 지본한의원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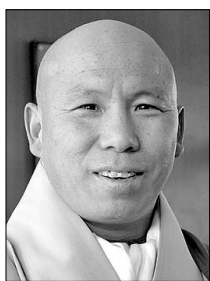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잘나가는 한 의사였던 노정은 원장은 "어려서부터 농촌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며 "대부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 질환이어서 정기적인 치료가 요구되어 충분히 듣고, 자상하게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리, 다리 통증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침을 맞는다"는 법화마을 이주남(73)씨는 "살다보니 주치의가 가까이 있어 두고 사는 세상도 본다"며 봉갑사와 병원의료진에 감사사를 표했다.

한편 천봉산 봉갑사는 1600년 전 아도화상이 창건한 불갑사, 도갑사와 함께 호남 3강(甲)의 하나로 복원불사를 펼치고 있다. 봉갑사 주지 각원 스님은 "한의원에 이어 오는 4월 봉갑사 불교문화원이 정식으로 개원되면 지역민의 건강은 물론 문화, 체육을 담당하는 사랑방이 될것이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 interview 원일 스님

## “신바람나는 학교 만들겠다”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생 후학양성에 힘써온 은사 박사 큰 스님의 유지를 이제야 이루게 됐습니다."

3월 3일 장동학원 이사장에 취임한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은 "4년전 입적한 은사 스님의 뜻을 뒤늦게 잇게 되어 부끄럽다"며 취임 첫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장동학원을 인수한 뒤 취임식을 미륵사 대웅전 문경 봉암사로 동안거에 들어간 원일 스님은 "안거기간 내내 '교육'을 화두로

정진에 임했다"며 "교육사업이 아닌 더불어 공부하는 수행으로 삼아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원일 스님은 "세지중학교는 60여년의 전통을 가진 지역의 명문이다"며 "공부하는 학생과 지도하는 교직원 모두가 신바람 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책걸상 전면교체, 도서실 및 학사보수, 원어민 교사 확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학사업에 힘써온 은사스님의 뜻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힌 원일 스님은 10여년 전 미륵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세지중학교를 비롯해 관내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장동학원 이사장 원일 스님은 1978년 백상 스님을 은사로 백양사로 입산했다. 84년 해인 승가대와 94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했으며, 86년부터 3년간 교학연수차 일본을 다녀왔다. 백양사 재장, 호법 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기획국장을 맡고 있다. 1994년부터 나주 미륵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 ‘수행과 실천’ 화두로 하나되는 동문

### 화엄사 산사체협 참가자 모임 결성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산사체협 참가자들이 수련동문회를 결성했다.

화엄사 수련회와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동문 40여명은 지난 2월 25~26일 양일간 화엄사 광학장에서 제1회 수련동문회 법회를 개최했다.

장립총회를 겸한 이번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은 대요 스님(화엄사 포교국장)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모임을 정례화(불가)를 정기모임, 년 2회 유동모임)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도법사 대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본래 마음자리인 '잡 나'를 찾는 이들이 모였으니 모범적인 수행공동체가 되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에서 회장대행으로 선임된 아일선씨는 "인터넷(cafe.daum.net/hwaomsa)을 통한 온라인 활동은 물론 화엄 선우회와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전개하는 등 실천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행공동체 화엄사 '수련동문회' 회원들.

수련회 다음날 참가자들은 곡성 태안사를 참배하고 숲길포행, 삼진강 문화학교 방문 등으로 참립법회를 회향했다.

화엄사는 올해 여름, 겨울 수련회와 주말을 이용한 템플스테이를 열 계획이다. (061)782-7600 글·사진=이준엽 기자

### 전북불교문화회 '다르마' 발간

전북불교문화회(회장 서정환)는 지난 2월 18일 전주 시내 모음식점에서 '다르마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르마>는 제8호로 소설 3편, 수필 5편, 시 40여 편과 신행한담으로 대행 스님의 마음을 좀 푼 되어놓고 편안하게 사세요!가 실렸다. (063)275-4000

이준엽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065-375-9986  
대전충북지사:043-732-5560

### 재가 화엄학림, 열린 불교강좌

(사자비신행회 부설 재가 화엄학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월 7일-9일 '희망을 담아가는 열린 불교강좌'를 개설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7일- 화엄학림 학장 재연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 2시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진행된다. (062)234-0090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 개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조상 영가와 일체각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하에來)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 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 神 임상최면사



現任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 국, 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었다.
-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종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 가방의 되어 눈에 뻤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 특별전수과정

● 개강일: 2006. 3. 10 (금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 전 수 비

200만원

###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내생 치유법
도인 양생 비법	칠차원 생명법

-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발급.
-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권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